

비판적 실재론의 변증법적 이행*

서민규

주제분류 영미철학, 사회철학

주요어 비판적 실재론, 변증법, 로이 바스카, 실재, 인간주의

요약문

본 논문은 로이 바스카가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헤겔 변증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비판하는지 다룬다. 바스카는 존재 탐구의 방법으로서 변증법적 총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헤겔 변증법의 일원론적, 관념론적, 목적론적 성격을 수용하지 않는다. 헤겔의 변증법은 절대지로 완결되는 닫힌 총체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의 핵심인 실제 부정 혹은 부재를 원리상 배제하며, 따라서 실재를 총체화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헤겔 변증법의 인식론적 의의는 인정하지만 실제에 대한 존재-인식적 차원에서는 열린 총체성이 필요하며, 그러할 경우에만 비판적 실재론의 문제의식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실재론에서 정립한 인간주의 비판을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 본 논문은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12)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평과 토론을 해주신 사회와 철학 연구회 회원들과 『철학탐구』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서론: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과 그 이론적 진화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철학자 로이 바스카(Roy Bhaskar, 1944-) 에 의해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운동이 지적 세계의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당시에는 자신의 스승 롬 하레(Rom Harre)의 실재론적 관점에 영향을 받아 실증주의적 과학방법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자신만의 실재론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과학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출발하였지만, 국제 비판적 실재론 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itical realism)를 중심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학문적 성과들을 살펴본다면 비판적 실재론을 더 이상 과학철학의 영역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¹⁾ 바스카 역시 처음부터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특정 영역에 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 기반을 둔 세계관을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체계화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dialectical critical realism), 2000년대 메타-실재(meta-reality)의 개념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 그의 이론적 작업들은 시스템 구축의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바스카와 비판적 실재론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1994년을 출발점으로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전의 초기 이론들에만 국한된 경향이 있다. 바스카의 초기 이론, 특히 비판적 실재론의 사회과학적 적용과 설명적 비판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는데,²⁾ 바스카 철학 사

1) 바스카와 국제 비판적 실재론 학회의 연구물들은 Routledge 출판사의 *Critical Realism Series*와 Equinox출판사에서 연 3회 발간되는 *Journal of Critical Realism*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2) 고창택(1994), “사회과학적 설명과 인간해방의 이념: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15집. 고창택(1995),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가능성”, 한국철학회. 고창택(1999), “사회이론적 비판과 사회과학적 설명”, 철학논총. 서영표(2009), “비판적 실재론과 비판적 사회이론”,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 민주주의 전략, 성공회대 급진민주주의 세미나 창간 준비 1호, 마가렛 아저 외, 이기홍 역(2005), 초월적 실재론과 사회과학: 비판적 실재론 1,

상의 두 번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 세 번째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실재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개척해야 할 분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이 소위 ‘변증법적 이행’을 통해 초기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이라는 두 번째 국면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바스카의 첫 저서 *A Realists Theory of Science*(Harvester Press, 1975)에서는 그 동안 ‘표준적’ 견해로 인정받던 실증주의 과학관을 비판하고 자신의 실재론적 견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Harvester Press, 1979)에서는 그의 실재론적 입장을 사회과학의 영역에 적용하여 ‘비판적 자연주의’ 제한된 반실증주의적 자연주의³⁾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과학적 실재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후 그는 *Scientific Realism and Human Emancipation*(Verso, 1986), *Reclaiming Reality*(Verso, 1989)등에서 이론과 가치, 설명과 비판의 관계에 관한 실재론적 견해를 밝힌 “설명적(혹은 해방적) 비판”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바스카는 1990년대 이후 서양철학의 변증법 전통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하고 정식화한 것이 1993년 출판된 *Dialectic: The Pulse of Freedom*(Verso, 1993)과 이듬해 출판된 *Plato Etc.*(Verso, 1994)이다. 이 글에서는 초기 이론을 대표하는 *A Realist Theory of Science*와 변증법적 이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ialectic: The Pulse of Freedom*을 주 텍스트로 하여 비판적 실재론과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한울아카데미, 마가렛 아처 외, 이기홍 역(2005), 비판적 자연주의와 사회과학: 비판적 실재론 2, 한울아카데미. 로이 바스카, 이기홍 역(2007),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후마니타스(2007), 테드 벤튼, 이기홍 역(2009), 새로운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한울아카데미(2009), 이영철(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한국행정학보.

3) 고창택(1995) 445쪽.

2. 비판적 실재론의 문제의식과 변증법의 필요성

변증법적 이행 이전의 비판적 실재론은 대상은 인식 주관과 무관하게 실재하며, 나아가 그 대상은 인식주관의 감각 경험에 의존하는 현상(혹은 현상적 대상)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실재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중력, 전자나 빛의 운동과 같은 현상들은 과학자들의 탐구 대상이 된다. 탐구의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대상들에 대한 지식—즉 현상적 대상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대상 자체—즉 중력, 전자, 빛 메커니즘 자체—는 인식 주관인 과학자들과 무관하게 실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학자들이 경험하는 현상—가령 실험에서 발견하는 규칙성—도 대상 자체와 구분되어야 한다. 인식 주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상적 대상—흙의 항상적 연결(constant conjunction)과 같은 경험적 사건—도 따라서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대상 자체—즉 현상적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스카는 현상적 대상에 관한 지식을 지식의 타동적 국면(transitive dimension of knowledge)라고 부르고 이를 실재 대상에 관한 지식의 국면인 자동적 국면(intransitive dimension of knowledge)와 구별한다.⁴⁾

“비가 오면 항상 땅이 젖는다”라는 규칙성을 관찰한다고 하자. 관찰된 규칙성으로 인해 비가 오는 사건(A)과 땅이 젖는 사건(B) 간에 항상적 연결(C)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흙과 같은 경험론자의 관점에서는 A와 B, 그리고 C만 경험할 수 있을 뿐, 감각-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필연적 법칙이라든지 인과 메커니즘들과 같은 것은 경험할 수 없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바스카의 관점에서 이는 존재에 대한 지식-지식의 자동적 국면-을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지식-지식의 타동적 국면, 즉 경험으로 환원하는 “인식적 오류(epistemic fallacy)”⁵⁾를 범하는 것이

4) Bhaskar, *A Realist Theory of Science*(Harvester Press, 1975) 21-24쪽 참고.

5) Bhaskar(1975) 30쪽.

다. 인간의 지식은 인간에 의존적이지만, ‘비가 오면 땅이 젖는’ 사건을 발생시키는 자연적 메커니즘은 인간과 독립적으로 실재한다. 바스카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적 오류는 실재를 감각-경험의 현상에만 국한시키는 인간중심적 존재론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도 사건들의 항상적 연결도 없을 것이다. 경험과 항상적 연결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식]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과 법칙들(causal laws)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이 여태껏 발견해 온 인과 법칙들은, 비록 그 법칙들에 상응하는 경험과 사건들은 사라질지라도,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험주의의 존재론이 은폐된 인간중심주의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대상과 대상의 지식(intransitive dimension of knowledge)은 대상에 대한 (인간의) 지식(transitive dimension of knowledge)으로 환원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가능하도록 구성적 역할을 하는 범주로도—비록 그것이 선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인식주관의 영역에 머무르는 한—환원될 수 없다. 칸트의 물자체로 인해, 그리고 범주를 구성하는 이성적 작용으로 인해 우리는 현상의 세계를 갖지만 그 물자체는 인간 지식의 영역 밖이라는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에 대한 비판이다. 인식 대상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상적 실재—즉 칸트의 물자체—를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실재를 탐구할 수 있고 또 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적 대상—타동적 대상(transitive objects)—을 결여한 과학을 상상할 수 없다면, 실제 대상—자동적 대상(intransitive objects)—을 결여한 과학은 상상할 수 있을까? 초현상적 실재의 지식도 그 토대를 잃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상, 즉 물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과학을 위해 철학이 갖는 존재론적 의

6) Ibid. 34쪽. 꺾쇠 안은 논자의 첨가. 바스카의 반-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eo MinGyu, “Bhaskar’s Philosophy as Anti-anthropism: A Comparative Study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 *Journal of Critical Realism*(7)1, 2008 참고.

무이다.⁷⁾ 이런 의미에서 비판적 실재론은 경험주의/실증주의/현상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관념론에 대해 ‘실재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와 인간의 지식에 대한 이상의 통찰을 바탕으로, 앤드류 콜리어(Andrew Collier)는 비판적 실재론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객관성(objectivity): 무엇이 실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드러나거나 알려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어떤 존재는 알려지거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재한다고 할 수 있다.
- (2) 오류가능성(fallibility): [실재하는 것은] 오류가능성이 없는 경험적 데이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재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또 다른 정보에 의해 언제든지 논박될 수 있다.
- (3) 초현상성(transphenomenality): 실재에 관한 지식은 알려지거나 드러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후의 구조들까지 포괄한다.
- (4) 반현상성(counter-phenomenality): 배후 구조들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현상을 넘어선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상에 대한 지식과 모순될 수도 있다. 과학이 필요한 근거도 바로 이 반현상성 [현상(에 관한 지식)과 배후 실재(에 관한 지식)의 불일치] 에 있다. 이러한 반현상성에 기초한 과학은 [과학적 진보를 포함해] 인간 해방의 원동력이 된다.⁸⁾

따라서 비판적 실재론은 사물, 사건, 사태의 현상적 실재를 인정하지만 그 근거에서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상적 실재는 부정하는 철학적 견해를 ‘현상론(actualism)’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하고 이를 비판한다. 과학 이론의 대상을 설명을 위한 이론적 구성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 모든 형태의 과학적 반실재론이 현상론에 해당되며, 사회구조 또한 이론적 구성물이라고 보는 사회 구성론적 관점, 사회의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개별 행위자와 그 행위들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개인주의적 견해 또한

7) Ibid. 23쪽.

8) Andrew Collier, *Critical Realism: An Introduction to Roy Bhaskar’s Philosophy* (Verso, 1994) 6-7쪽 참고. 꺾쇠 안은 논자의 첨가.

비판적 실재론의 표적이 된다.⁹⁾ 현상에 국한된 모든 이론들은 초현상성이라는 비판적 실재론의 기본 원칙을 결여하고, 따라서 과학적 발견과 진보, 사회과학적 해방의 핵심인 반현상성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현상을 넘어선 초현상적 실재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스카는 그 해답을 “초월적 논증(transcendental argument)”에서 찾는다. 칸트의 방법론에서 기원한 초월적 논증은 현상에 관한 기술(description)으로부터 출발해 그 기술을 생산하거나 조건 짓는 것에 관한 기술을 추론하는 소급적 방식의 논증(retroductive argument)이다.¹⁰⁾ 이 방법을 통해 칸트는 현상세계에 관한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를 인식 주관의 이성 능력으로부터 도출했다고 한다면, 바스카의 초월적 논증은 현상 세계에 관한 지식과 그 범주들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 세계에 관한 지식을 소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상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임무라고 한다면, 과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존재론적인 기초 작업¹¹⁾을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바스카의 초월적 논증은 소급적 기초 작업을 통해 과학적 발견과 그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초현상적 실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에서 출발한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과정과 설명적 비판의 가능성을 실재론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서양 변증법 전통과의 만남을 통해 이론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비판적 실재론자들은 이를 두고 비판적 실재론의 “변증법적 전환”(dialectical turn)이라 부르는데,¹²⁾ 사실 바스카는 비판적 실재론의 형성 초기에서부

9) 이를 바탕으로 바스카는 사회구조가 개별 행위자와 독립적이지만 기생적(symbiotic) 관계를 형성하는 초현상적 실재라는 “사회행위의 변형론적 모델”(transformational model of social activity)을 제시한다. Roy Bhaska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Harvester Press, 1979) 참고.

10) Roy Bhaskar, *Scientific Realism and Human Emancipation*(Verso, 1986), 11쪽, 주 26.

11) 로크의 표현을 빌려 바스카는 철학자의 임무를 과학을 위한 “under-labourer” 또는 “midwife” 로 규정하고 있다. Bhaskar(1975) 10쪽.

터 변증법을 과학적 실천 방법론의 핵심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¹³⁾ 그의 후기 이론 전개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 과정임을 언급하고 있다.¹⁴⁾

과학적 발견의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규칙성을 확인한 뒤, 그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과학적 발견은 이 관찰-가설-확인 과정을 거치고, 이는 다름 아닌 ‘변증법적인’ 과정의(인식론적) 실천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¹⁵⁾ 이러한 과학적 실천으로서의 변증법적 방법은 객관성, 오류가능성, 초현상성, 반현상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비판적 실재론의 기준들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된다. 초기 이론에서 변증법을 일종의 과학적 발견의 논리로 이해하던 바스카는 이제 서양 변증법 전통과 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면서 변증법을 단순히 과학적 발견의 논리로써만이 아니라 ‘과정(process)’로서의 실제 세계 일반을 적절히 설명하는 학문적 방법으로 이해한다. 즉, 변증법은 대립, 상호관계, 변화 등의 실제의 과정을 의미 있게 드러내는 작업이고,¹⁶⁾ 초기 이론의 대상이 되었던 과학적 활동도 이 변증법적 작업의 일부분에 속한다.

비판적 실재론의 변증법적 이행은 해겔의 변증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바스카는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는 비판적 실재론의 초기 이론을 변증법적 개념들을 통해 보다 정교히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양 변증법의 상징인 헤겔주의

12) 일반적으로 비판적 실재론자들은 바스카의 사상에 크게 두 가지 전환점이 있다는데 동의하는데, 그 하나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변증법적” 전환이고, 두 번째는 2000년대 이후의 “영적(spiritual)” 전환이다. *From East to West*(Routledge, 2000), *From Science to Emancipation*(Sage, 2002a), *Reflection on Meta-Reality: Transcendence, Emancipation and Everyday Life*(Sage, 2002b), *meta-Reality: Creativity, Love and Freedom*(Sage, 2002c) 등이 영적 전환을 대표하는 바스카의 저서들이다.

13) Bhaskar(1975) 145쪽.

14) Bhaskar(2002c) 83-4쪽.

15) Bhaskar(1975) 14쪽과 145쪽.

16) Bhaskar(1993) 3쪽.

변증법을 ‘비보존적으로 지양(non-preservative sublation)’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⁷⁾ 비판적 실재론의 핵심 개념들을 유지하면서 헤겔주의 변증법을 넘어서는, ‘과정’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새로운 변증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3. 바스카의 헤겔 변증법 이해

논증의 기술이라는 논리학적 의미에서 출발한 변증법은 헤겔에 이르러 “절대 관념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형이상학적 체계로 격상된다. 그에게 있어 변증법이란 더 이상 사고의 법칙에 관한 체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존재-론적(onto-logical) 구조에 관한 학적 체계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그 대상인 존재가 무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헤겔은 사고와 존재,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혹은 범주)가 주체의 경험을 초월적 형식으로 분석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는 칸트의 견해에 사고와 존재 사이에 근본적 장벽이 있음을 지적한다. 칸트에게 있어 개념은 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하는 선험적 구조일 뿐이기 때문에, 이는 주체가 경험하는 현상에 관한 지식은 가능해도 물자체에 관한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현상과 본질, 사고와 존재를 이원화한 칸트의 철학에 응답하기 위해 헤겔은(절대적) 사고와(절대적) 존재의 가능성을 변증법의 형식을 통해 절대 관념의 과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고자 한다. 헤겔에게 있어 진리란 속성상 “전체”이며 따

17) “A preservative generation and enrichment of existing critical realism and non-preservative sublation of Hegelian dialectic.” Bhaskar(1993) preface. 사회학자 마가렛 아처(Margaret Archer)는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은 기존의 비판적 실재론의 문제의식들—특히 존재와 인식의 근본적 구분, 존재론적 층위 개념 등을 보존하면서 기존(헤겔) 변증법을 내재적으로 비판, ‘진리 대응, 시-공간성, 변증법적 보편성의 논리(새로운) 윤리학적 가능성’ 등의 문제에 비판적 실재론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Margaret Archer, *et al.* (1998) 562쪽 참고.

라서 “총체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¹⁸⁾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 존재의 필연성을 논리학적 총체성의 형태로 설명함으로써 그것 자체로 완결된 학적 체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칸트와 달리 헤겔은 절대적 사고와 존재의 차원에서는 개념이 대상에 외재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대상의 실체를 규정한다고 보고, 바로 이 개념의 논리적 과정을 변증법으로 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념은 대상의 본질이며, 헤겔은 개념을 실재의 진정한 형식으로 간주한다. 지식의 각 계기를 총괄하는 총체성으로서의 ‘절대관념’은 바로 이 개념의 운동을 이끌고, 개념의 운동을 통해 자신을 정립한다. 그에게 있어 진리는 “의식이 그것 자체로 대상인 한, 혹은 대상이 그것 자체로, 순수 의식인 한”¹⁹⁾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헤겔에게는 바로 이 절대지가 완수한 주-객 동일성이 진정한 의미의 진리이고, 이 절대지의 총체성을 통해 의식-대상 간의 이원성이 해소되며 따라서 의식의 확실성이 보증된다. 헤겔에게 있어 변증법은 바로 이 절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념 운동의 학적 체계이며, 절대지가 개념 운동을 통해 드러내는 주-객 동일성을 논리적 체계로 기술한 것이 바로 변증법인 것이다.

헤겔 변증법에서 개념의 운동은 세 단계의 계기를 갖는다. 첫 번째 계기는 개념의 추상적 국면 혹은 오성의 국면이고, 두 번째 계기는 개념의 변증법적 국면 혹은 부정적 이성의 국면, 그리고 세 번째 계기는 개념의 사변적 국면 혹은 긍정적 이성의 국면이다.²⁰⁾ 오성의 국면에서 대상은 규정적으로 추상화되어 다른 대상들과 구분된다. 이 국면에서 개념은 대상을 구분하고 추상화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이해(understanding)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계기는 “한정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극단에 부딪혔을 때 그 대립자로 전복”²¹⁾—즉, 부정—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오

18)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20, 그리고 *Encyclopedia Logic*, 14, Houlgate(ed.), *The Hegel Reader*(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53쪽과 137쪽.

19) Hegel, *Science of Logic*, Houlgate(ed.)(1998) 175쪽.

20) Hegel, *Encyclopedia Logic*, Houlgate(ed.)(1998) 168쪽.

21) “It is finite, and, more precisely, it is such that when it is pushed to an

성은 규정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적 이성, 혹은 그것 자체로 변증법적인 국면은 오성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대립자로서의 이행을 예비하는 단계이다. 즉, 극복과 이행이 공존하는, 그것 자체로 변증법적 운동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계이다. 헤겔의 표현에 따르면, 부정적 이성의 국면에서는 “규정자들의 일면성과 제한성의 한계가 그것 자체로 부정성으로 드러나는 내재적 초월”을 경험하며, 이 내재적 초월이 “모든 유한한 것의 본질, 즉 자기 지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²⁾ 내재적 초월 혹은 자기 지양이 이 국면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개념 운동 전체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개념 운동의 세 번째 국면인 긍정적 이성, 혹은 사변적 이성의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드러난 규정자와 그 부정성의 모순이 해소되고 또한 보존되어, 그 자기 지양의 결과가 다시 긍정성의 국면으로 들어난다. 절대지를 향한 오성, 부정적(변증법적) 이성, 그리고 긍정적(사변적) 이성의 끊임없는 과정이 주-객 동일성의 진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헤겔에 있어 개념은 오성-부정적 이성-긍정적 이성의 ‘삼원적’ 형식을 취하며 절대지에 이르는 논리적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변증법은 이 형식을 통해 자기모순의 내재성과 지양의 필연성, 그리고 절대지에 이르는 운동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표출한다. 절대적 관념론의 체계에선 모든 자연적, 정신적 현상 또한 이 개념의 변증법적 운동이 체화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한다.²³⁾

바스카는 헤겔의 변증법을 오성-부정적 이성-긍정적 이성의 단계로 이루어진 이성 자체의 논리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오성의 단계에서는 주체인 의식이 개념 혹은 실재의 범주들을 고정되고 구분된 형식으로 받아들인데, 바스카는 과학적 지식이 바로 이 오성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본다. 의식이 개념 혹은 범주들을 반영할 때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고

extreme it overturns into its opposite.” Ibid, 169쪽.
 22) Stephen Houlgate(ed.), *The Hegel Reader*(Blackwell Publishers Ltd., 1998) 10쪽.
 23) 이에 대해 바스카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Hegel’s philosophy of nature and spirit is the systematic *descending* of this logical movement.” Bhaskar(1993) 19쪽.

있음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 내재적 모순은 헤겔이 변증법적인 단계 자체라고 부르는 부정적 이성의 단계에서 의식에 현실화된다. 또한 이 단계는, 오성의 단계와 그 내적 모순까지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 단계의 개념 혹은 범주들로 상승하는 질적 도약의 계기이기도 하다. 부정성은 항상 새롭고 보다 포괄적인 규정성으로 이끈다. 보존과 이행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 계기를 헤겔은 ‘지양’(sublation, *Aufhebung*)으로 개념화한다. 그리고 이 지양은 의식이 사변적 이성 혹은 이성의 긍정적 단계에 도달해야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이성의 논리적 과정으로서의 헤겔 변증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긍정적 이성으로 오성 이전의 단계인 일상적 지식의 수준으로 되돌아가 자기 충족적 절대지로 총체화 한다. 바스카는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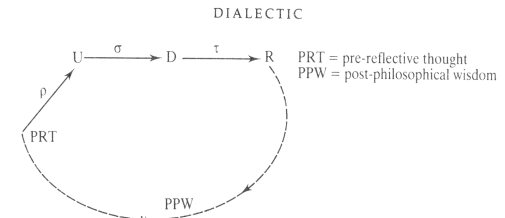


Figure 6.1 The Logic of Hegel's Dialectic

개념의 운동은 절대지가 오성-변증법적 이성-사변적 이성의 과정을 거쳐 자기 생성하는 과정이지만, 헤겔은 이를 학적 지식의 운동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개념이 곧 의식과 대상을 아우르는 본질이기때,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변화와 과정 역시 개념 운동의 체화 혹은 그 재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변화와 운동은 절대지의 산물이며, 절대지의 체계 하

24) Bhaskar(1993) 22쪽과 Bhaskar(1994) 119쪽.

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절대지의 체계가 완성될 때, 모든 것은 실체일 뿐 아니라 또한 주체로써 그 진리를 드러낸다.²⁵⁾

이러한 특성을 가진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 바스카는 ‘정신적 일원론 (spiritual monism)’, ‘실현된 관념론(realized idealism)’, ‘내재적 목적론 (immanent teleology)’ 등의 표현으로 묘사한다. 칸트의 이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겔은 절대 주체가 본질적 역할을 하는 변증법의 새로운 모델을 요청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비환원적이고 주관적인 정신적 일원론’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구성적인 관념론’으로 귀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헤겔 변증법의 일원론적이고 관념론적인 특성은 “내재적 목적론의 형태로 드러나며... 이는 세계가 구체적으로 합리적 총체성으로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무한한) 정신은 헤겔의 체계 내에서 철학적 자기의식이 될 수 있다.”²⁶⁾ 일원론, 관념론, 목적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헤겔식 변증법을 이룬다는 것이다. 세계의 차별성이 단일성의 체계로 설명되는 헤겔의 변증법을 바스카는 “사고 내에서 존재와 사고가 성좌적 동일성(constellational identity)을 인지하고 명료화”²⁷⁾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성좌적 동일성’이란 헤겔 변증법의 총체성에 대한 메타포적 표현으로서, 바스카는 ‘획득된 것이 획득하는 것을 통해 통시적 혹은 공시적으로 발현하는 동일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²⁸⁾ 헤겔 변증법에서 ‘획득된 것’은 존재와 그 대립을 이루는 사고의 존재/사고 이원성이며, ‘획득하는 것’은 존재-사고 동일성으로써의 사고 자체, 즉 절대지이다. 절대지를 통해 존재와 그 대립자로서의 사고는 통시적/공시적으로 발현하여 동일성

25) “In my view, which can be justified only by the exposition of the system itself, everything turns on grasping and expressing the True, not only as Substance, but equally as Subject.”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Houlgate (ed.)(1998) 52쪽.

26) Bhaskar(1993) 17-18쪽.

27) Ibid, 18쪽.

28) “Containment within an over-reaching term from which the over-reached term may be diachronically or synchronically emergent.” Ibid, 395쪽.

의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이 백지에 찍힌 점들과 같이 존재하다가 성좌도가 완성되면서 별자리를 이루는 바로 ‘그’ 별들로 발현하게 되듯, 헤겔 변증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부정적 이성-긍정적 이성의 틀을 통해 무차별적 존재가 사고로 인해 차별화되고, 차별화된 존재가 다시 사고와 동일시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절대지라는 획득자를 통해 발현한다. 절대지가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의 총체를 주관한다면, 별들은 그 총체를 이루는 개념들이며, 성좌들의 연합인 성좌도가 개념의 운동을 변증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존재와 사고가 사고 자체 내에서 이루는 성좌적 동일성을 인지하고 명료화한다’는 표현은 헤겔 변증법의 일원론적, 관념론적, 그리고 목적론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각각의 별들이 추상적 동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대정신이 기획하는 성좌도의 목적에 복무하는 한에서 개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헤겔 자신이 변증법의 두 번째 단계를 ‘변증법적’ 이성의 단계로 명명하였듯이, 변증법은 또한 그 전 과정의 핵심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 바스카에 따르면 헤겔 변증법에서 모든 부정은 필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혹은 상위단계의 긍정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핵심 계기를 통해 우리는 ‘규정적 부정(determinate negation)’을 경험한다. ‘규정적 부정’이란 표현은 부정이 그 대립자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규정한다는 뜻을 함축한다. 부정은 다시 부정되어 사변적 이성의 단계에서 긍정성의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스카는 헤겔 변증법의 부정에 대해 ‘규정적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규정적 부정의 계기를 통해 변증법적 탐구자는 의식의 다양한 범주, 개념, 형태들이 발현하여, 그 범주, 개념, 형태들 전체의 체계로 완수될 때까지, 보다 포괄적인 총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경험한다.²⁹⁾ 이 계기에서 부정성은 긍정성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정은 규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바스카는 “절대적 관념론의 만화경을 지속적이며 회귀적인 형태로 확장하는 것은

29) Bhaskar(1993) 20쪽.

그것이 이성 내에서 오성과 이성이 성좌적 동일성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³⁰⁾ 모든 부정이 규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성좌적 동일성의 형식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헤겔의 변증법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종료되는, 즉 모든 것이 부정성의 형식을 통해 긍정성으로 회귀하는 “실현된 현상태(the actualized entelechy of the present)”³¹⁾인 것이다.

4. 헤겔 변증법 비판: 닫힌 총체성에서 열린 총체성으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겔의 변증법이 전개하는 이성의 논리적 과정에서는 ‘지양’이 그 핵심 계기이면서 또한 그것이 변증법적 운동의 동력이기도 한데, 바스카는 이 지양의 계기가 본질적으로 “보존적으로 규정적인(preservatively determinate)”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즉, 헤겔에게서 이성의 변증법적 운동과 절대지로의 완성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양의 ‘보존적 규정성’에 있다는 것이다. 지양이 보존적으로 규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잃거나 남겨놓지 않고, 상위 긍정을 위한 하위 부정의 형태로 체계 내에 보존하고 축적하는 형태를 통해 절대지의 목적에 이르기 때문이다.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은 오성의 추상적 동일성과 부정적 이성의 대립을 다시 부정하여 긍정적 이성, 즉 사변적 이성의 동일성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가 말하는 ‘부정의 부정’은 사변적 이성이 동일성으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며, 오직 그러할 경우에만 또 다른 상위의 부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써 변증법적 운동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바스카의 시각에서는 ‘보존적으로 규정적인’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아무것도 상실하는 것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직 부재 absence만이 보존되지 않는다.”³²⁾ 추상적 동일성의 대립자로서의 부정을 “실재

30) Ibid.

31) Ibid, 22쪽.

부정 혹은 부재(real negation or absence),” 그리고 이 대립의 부정, 즉 부정의 부정을 바스카는 “이행적 부정(transformative negation)”이라고 부르는데,³³⁾ 이 이행적 부정이 헤겔에서는 보존적으로 규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원 부정, 즉 실제 부정 혹은 부재의 자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재’가 본질인 실제 부정이 변증법적 지양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정이 상위 단계의 긍정—비록 그것이 부정의 부정이라는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의 계기로 작용하는 한 “그것 [부재]는 결코 발전하거나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부재임을] 중지하고 ‘긍정적으로’ 체계를 복구한다.”³⁴⁾ 사변적 이성의 절대 긍정성의 체계에서 운동의 핵심이 핵심이기를 그만두고 그 자리를 잃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헤겔 변증법이 드러내는 “총화, 구조화 혹은 상위-구조화의 비절충적 원리”³⁵⁾가 결국(성좌적으로) “닫힌” 체계, 혹은 “일면적으로 충족된(linearly completed)” 체계에 머물고 만다는 것이다. 긍정성으로 완결되는 절대지의 체계가 그 동력으로 상정했던 지양의 핵심, 즉 실제 부정 혹은 부재를 스스로 배제하는 자기모순을 범함으로써 오성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변증법적/사변적 이성이 자기 한계를 노출하고 만다.

바스카에게 변증법이란 존재의 변화의 원리를 총체적으로 설명—즉 대립, 상호관계, 변화 등의 실재의 과정을 의미 있게 드러내는—하는 것이어야 하고, 변증법이 대상으로 하는 존재의 변화란 내적 모순뿐 아니라 외적 모순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순의 형태를 띠지 않는 갖가지 형태의 제약과 이행의 형태를 포괄해야 한다.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실재는 변화의 모든 형태에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겔은 변증법의 총체성을 닫힌 체계로 상정하고 내적 모순만을 존재 변화의 형식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변증법적 부정을 보존적이고 규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32) Bhaskar(1993) 24쪽.

33) Ibid, 23쪽.

34) Ibid, 5쪽.

35) Ibid, 23쪽.

한계로 이어진다. 헤겔의 닫힌 변증법에 반대해 바스카는 부정은 규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규정적 혹은 준규정적 특성들도 아우를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그러할 때에 규정적인 형태의 실재뿐 아니라 모호하고 불명확한 실재의 특성들 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은 부정의 규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체계 내의 모든 것을 절대지의 최종 단계까지 보존하여 긍정하고, 결국은 사변적 이성의 성과적 형태로 완결되어 닫히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닫힌 체계에서는 내적 모순 이외의 변화의 형태는 배제되고, 그래서 비규정적 혹은 준규정적 부정의 가능성은 상실되고 만다는 것이 바스카의 비판이다.

비판적 실재론자로서 바스카에게 헤겔의 변증법은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헤겔의 변증법이 오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주객 동일성의 목적을 완수하지만, 바스카의 시각에 헤겔의 주체와 객체는 다시 절대지의 형태를 가진(사변적) 주체 내에서 성과적 동일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부정의 부정—바스카의 이행적 부정—을 사고의 체계 내에 묶어 뚫으로써 실재의 다양한 특성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정의 부정이 가져오는 이행이 사고의 닫힌 체계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곧 현상적 변화 혹은 현상성의 변형에 불과할 뿐이지, 현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실재적 과정의 참 모습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즉, 절대지의 닫힌 총체성은 비판적 실재론이 내세우는 초현상성과 반현상성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결국 칸트가 설정한 현상/실재 이원성의 한계를 또 다른 형태로 남겨놓을 뿐이다.³⁶⁾ 3장의 말미에서 언급하였듯이, 주객 동일성의 닫힌 체계는 헤겔이 말하는 절대지의 현실 내에서 미래와 현재가 성과적 동일성을 이루며, 현재적 동일성의 형식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어 버리는 ‘실현된 현재태’에 불과하다. 닫힌 체계에서 미래적 형태의 잠재성과 경향성은 비규정적 혹은 준규정적 특성을 상실하고 만다. 실재는 잠재성과 경향성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비판적 실재론의 변증법은 헤겔의 그것보다 더 실재에 관대해야 한다.

36) Ibid. 26-7쪽.

헤겔 변증법의 닫힘성으로 인해 바스카는 헤겔의 총체성을 “나쁜” 총체성이라고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열린 총체성이 닫힌 총체성보다 완전하고 적합한데, 왜냐하면 “열린 총체성이 보다 관대하고 포괄적이며 그래서 닫힌 총체성을 특별한 경우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총체성은 목적론적으로 닫힌 체계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바스카는 총체성이 반드시 닫힌, 규정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열린 체계일 때 비규정적 혹은 준규정적인 것의 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총체성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스카는 총체성이 열려 있을 경우 ‘무한 퇴행(infinite regress)’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헤겔이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무한 퇴행에서는 그 원리상 “진정한 변화는(그리고 변화의 원리조차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³⁸⁾는 점을 내포하는데, 진정한 변화를 결여한 매너리즘적 무한 퇴행은 바스카의 열린 총체성 개념이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열린 총체성은 변화 ‘자체’에도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 퇴행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린 총체성이 변화의 근본적 원리에 보다 적합하며, 그래서 보다 관대하고 수용적이다. 헤겔의 닫힌, 그래서 절대지로 귀결되는, 총체성은 목적지를 상정하고 그 지점을 향해 운동하는 이성의 논리적 과정을 체계화하지만, 열린 총체성에서는 개념 운동의(규정적) 현실성뿐만 아니라 그(비규정적, 준규정적인 것으로서의) 잠재성과 경향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바스카에게 있어 “실재 [물자체]는 잠재적으로 무한한 것의 총체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무엇인가 알지만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는 총체”³⁹⁾이기 때문이다. 실재의 초현상적, 반현상적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 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⁴⁰⁾이라는 헤겔의 규정이 완결된, 그래서 닫힌, 총체성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바스

37) Ibid. 26쪽.

38) Ibid. 25쪽.

39) Ibid. 15쪽.

40) Hegel, *Encyclopedia Logic*, Houlgate(ed.)(1998) 136쪽.

카가 실재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의 변증법적 총체성이 왜 열려있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단힌 총체성에 대한 바스카의 비판은 사고와 존재가 사고 내에서 성취적 동일성을 형성한다는 절대적 관념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스카의 비판은 헤겔의 변증법이 실천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배제한다는 맑스의 헤겔 변증법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질/실천이라는 토대 위에서 있어야 할 변증법 체계가 오히려 그 산물인 관념/사고에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선차성과 실천의 가능성이 사고의 현재성에 얽매어 있다는 맑스의 비판을 계승해, 바스카는 헤겔 총체성의 닫힌성이 그 한계로 인해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비판으로 이어간다. 바스카의 표현을 빌린다면 헤겔은 자신이 발견한 사고의 고원(plateau of knowledge)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재와 그 개념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시정되어야 할 것은 실재이지 그것의 진리 [개념]이 아니다”⁴¹⁾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총체성은 칸트의 이원성—현상과 물자체의 단절—을 극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닫힌 총체성과 절대정신 사이의 이원성으로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스카는 헤겔의 변증법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다른 모든 것은 보존하면서도 변증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재 혹은 부정의 개념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에서는 “오성의 특질인 긍정성 혹은 자기동일성이 이성의 마지막 순간에 되살아난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은 헤겔스럽지 않게 변증법적(un-Hegelianly-dialectical)이다.”⁴²⁾

바스카는 헤겔이 ‘규정적 부정’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헤겔은 부정을 절대지가 생산하는 ‘자기-부정의 결과물으로써만’⁴³⁾ 간주하기 때문이며, 이는 변증법적 총체성이 실제로 포괄해야 할 비규정적 혹은

41) Bhaskar(1993) 26쪽.

42) Ibid. 27쪽.

43) Ibid.

준규정적 형태의 부정을 배제하는 실수를 범한다고 비판한다. 자기-부정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그 결과물들이 규정적 형태로 헤겔의 절대 관념의 체계에 축적/보존되는데, 바스카의 실재론적 관점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사실 ‘소멸하는 매개체(vanishing mediators)’이기 때문에 [헤겔식의] 보존적 형태의 부정이란 사실상 [실재에선] 드물고”⁴⁴⁾ 비보존적 형태의 부정이 실재의 더 많은 부분을 이룬다는 것이다. 더욱이 헤겔의 규정적 부정은 절대지의 체계 내로 모든 것을 보존하고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에 지양(양)의 진정한 개념—즉 폐지-보존-승화—과 자기모순적이다. 이에 반해 바스카는 “진정한 의미의 지양에서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비록 그것이 시간일 뿐이라도, 상실되어야만”⁴⁵⁾ 하는데, 헤겔은 이행적 부정을 통해 모든 것을 체계 내에 보존함으로써 실제 부정 혹은 부재의 자리를 배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실제 부정 혹은 부재에 열려있는 총체성으로써의 변증법이 필요하며, 그러할 때만이 비판적 실재론의 보존적 이행과 헤겔의 변증법을 비보존적으로 지양하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 결론: 변증법적 비판 실재론—만인간주의 변증법의 가능성

사고와 존재의 문제를 보다 엄밀한 차원에서 탐구하고자 했던 헤겔은 오성—부정적(변증법적) 이성—규정적(사변적) 이성의 변증법적 과정을 절대 관념의 역사적 과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헤겔 변증법의 일원론적, 관념론적 그리고 목적론적 특성은 바스카의 시각에서 볼 때 참된 실재를 총체화 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는 헤겔이 근본적으로 변증법의 총체성을 완결되어 닫힌 체계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닫힌 체계는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실재의 참모습은 보존적이기도 하지만 비보존적이기도 하며, 규정적이기도 하지만 비규정적 혹은 준 규정적이기도 하다. 실재의 과정은 내적 모순의 형태로만

44) Ibid.

45) Ibid.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모순, 나아가 모순이라고 할 수 없는 갖가지 제약과 이행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실재는 긍정적으로 체계에 복구되기도 하지만 또한 부정적으로 체계에서 소멸하기도 한다. 절대지의 관점에서는 완결된 자신의 체계에서 모든 것이 긍정화된 것 같지만, 그래서 옳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닫힌 체계에서는 사실상 실재 부정 즉 부재는 설 자리를 잃는다. 사실상 그것이 변증법적 과정의 핵심이자 동력이기 때문에 닫힌 변증법은 ‘헤겔스럽지 않게’ 변증법적이다. 바스카에게 실재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전체이며 따라서 총체성의 형태—잠재적으로 무한한 것의 총체—로 존재하지만, 완결되어 가는 긍정성이 아니라 소멸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변증법은 부정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열려 있어야 한다.

바스카에게 변증법이란 과정으로서의 실제 세계를 적절히 설명하는 논리적/인식론적/존재론적 체계이기에 그것은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론적이어야 하며, 실재의 현상에만 얽매어 있는 모든 형태의 비실재론에 비판적이어야 한다. 실재의 객관성은 우리에게 알려지거나 드러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고, 따라서 인간의 지식은 그것에 비추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실재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무엇인가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아는 지 모른다. 잠재적으로 무한한 총체성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주의의 한계와 함께 과학적 진보와 인간 해방의 가능성도 닫히고 만다.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은 비실재론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바스카의 관점에서는 ‘실재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나아가 ‘어떤(비)실재론이 더 논리적으로 정당한가?’라는 인식론적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떤 실재론이 실재를 더 잘 드러내느냐?’ 하는 존재-인식론적 것이다.⁴⁶⁾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왜 비실

46) Roy Bhaskar, *Plato Etc.: The Problems of Philosophy and Their Resolution* (Verso, 1994) 참고.

재론이 문제인지 보여주기 위해 바스카는 과학철학의 경험-실증주의적 경향에 은폐되어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판적 실재론의 변증법적 이행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닫힌 체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정, 부재를 배제한 절대 긍정의 총체성 역시 인간중심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헤겔의 변증법에 나타나는 닫힌 총체성과 절대정신의 이원성은 인간주의와 초월적 비실재론의 공존에 지나지 않는다.⁴⁷⁾ 그래서 바스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헤겔의 주객 동일성 철학은] 사실들과 사실들의 연결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닫힌 체계를 우상숭배하는 지식의 밀교적 자연화—즉 흙의 경우처럼—와 공존한다: 다시 말해 [주객 동일성의 철학은] 사실상 존재 자체로 인해 형성되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강박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공존한다.⁴⁸⁾

헤겔의 변증법이 절대 긍정의 닫힌 총체성에 머물러 있는 한 경험주의가 범하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실재론적 세계관의 서양적 전통을 여전히 답습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스카가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는 이러한 비실재론적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헤겔 비판을 통해 그가 얻으려는 것은 ‘실재’를 다시 중심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반인간주의 변증법의 가능성일 것이다.

(중앙대학교)

47) Seo(2008) 10-15쪽 참고.

48) Bhaskar(1994) 49.

참고문헌

고창택(1994), “사회과학적 설명과 인간해방의 이념: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15집.

고창택(1995),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과 사회과학적 지식의 가능성”, 한국철학회.

고창택(1999), “사회이론적 비판과 사회과학적 설명”, 『철학논총』.

서영표(2009), “비판적 실재론과 비판적 사회이론”,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 민주주의 전략』, 성공회대 급진민주주의 세미나 창간 준비 1호.

이기홍 역(2005), 『초월적 실재론과 사회과학: 비판적 실재론 1』, 한울아카데미.

이기홍 역(2005), 『비판적 자연주의와 사회과학: 비판적 실재론 2』, 한울아카데미.

이기홍 역(2007),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후마니타스.

이기홍 역(2009), 『새로운 사회과학방법론: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한울아카데미.

이영철(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한국행정학보』.

Archer, Margaret et al.(1998), *Critical Realism: Essential Readings*, Routledge.

Bhaskar, Roy(1975), *A Realist Theory of Science*, Harvester Press Ltd.

_____(1979),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Harvester Press Ltd.

_____(1986), *Scientific Realism and Human Emancipation*, Verso.

_____(1993), *Dialectic: The Pulse of Freedom*, Verso.

_____(1994), *Plato Etc.: The Problems of Philosophy and Their Resolution*, Verso

_____(2000), *From East to West*, Routledge.

_____(2002a), *From Science to Emancipation*, Sage.

_____(2002b), *Reflection on Meta-Reality: Transcendence, Emancipation and Everyday Life*, Sage.

_____(2002c), *meta-Reality: Creativity, Love and Freedom*, Sage.

Collier, Andrew(1994), *Critical Realism: An Introduction to Roy Bhaskar's*

Philosophy, Verso.

Hegel, G.W.F., *Phenomenology of Spirit*, in Houlgate, Stephen(ed.)(1998), *The Hegel Reader*, Blackwell Publishers Ltd.

_____, *Encyclopedia Logic*, in Houlgate, Stephen(ed.)(1998), *The Hegel Reader*, Blackwell Publishers Ltd.

_____, *Science of Logic*, in Houlgate, Stephen(ed.)(1998), *The Hegel Reader*, Blackwell Publishers Ltd.

Houlgate, Stephen(1998), *The Hegel Reader*, Blackwell Publishers Ltd.

Seo, MinGyu(2008), “Bhaskar's Philosophy as Anti-anthropism: A Comparative Study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 *Journal of Critical Realism*(7)1.

Dialectical Transformation of Critical Realism

MinGyu Seo

This paper aims to survey Roy Bhaskar's dialectical transformation from his early critical realism. Bhaskar accepts Hegel's idea of dialectical totality as a system of ontological inquiry, but does not agree with its monistic, idealistic and teleological characteristics. These characteristics make the totality "closed" which is exhausted within the absolute knowledge. This does not allow the place for the real negation or absence in principle, thus insufficient to totalize the system of the real; Rather, "open" totality is appropriate for the onto-logical purpose, and his idea of critical realism can be sustained only in that case. In this dialectical transformation of critical realism, Bhaskar successfully preserves his critique of "anthropism" which he initiated in his earlier philosophy of critical realism.

Key Words: Critical Realism, Dialectics, Roy Bhaskar, Reality, Anthropism.

서민규 e-mail: mgseo@wmcau.ac.kr

투 고 일	2010년 4월 20일
심 사 일	2010년 5월 6일
게재확정	2010년 5월 19일